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 이 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운영방안 연구

- 제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how to operate cultural centers  
to reinvigorate the local culture**

**- 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윤 민 희

2009년 6월 30일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운영방안 연구  
- 제주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how to operate cultural centers  
to reinvigorate the local culture  
- 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30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윤 민 희



윤민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추천함.

2009년 6월 30일

지도교수 김 이 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윤민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 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문화의 시대에 돌입했다. 문화는 인류가 시작하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같이 발전해 왔다.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문화는 다양하게 변형되고 팽창되어 왔다. 문화의 변화에 맞춰 문화 공간 역시 틀에 벗어나 현대인들의 요구와 취향에 맞게 바뀌고 있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1, 2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도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쇠퇴한 도시들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은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시행해 왔다. 문화와 예술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 재건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고,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에서 성공을 거두며 문화 예술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산업 중에서도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살펴보고, 성공요인을 분석하며 제주지역에 적합한 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와 성공적인 해외 사례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해외 사례지 선정은 문화 공간 중에서도 미술관의 도입이 지역 문화 활성화로 연결된 성공적인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제주지역 미술관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는 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 등의 도입으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사람들의 여가를 즐기는 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능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다양한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정 공간도 형성되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



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혜택은 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은 간접적으로 밖에는 문화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팽창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 도에 부족한 문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떨어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미술관으로는 1985년에 개관한 서귀포기당미술관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미술관이라는 명목만 유지 할뿐 관리 허술로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은 서귀포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획전을 열기에 부족한 시설로서 역시 종합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의 72%가 거주하는 제주시에 첫 공립 미술관인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1999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특색 화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형성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활성화와 전시공간마련,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은 입지적으로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던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발보다는 보존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 산업 방향에 문화 예술과 보존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시 지역의 첫 번째 공립미술관이라는 점에서도 제주 도민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제주현대미술관이 성공적인 문화



공간으로 성장한다면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2009년 개관될 제주도립미술관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 중인 문화회관 등의 문화 공간 운영에도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로 변화를 시도한 제주도가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탁상공론식의 운영방식을 벗어나 세계정세에 맞춰 냉철한 시각으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를 받아들여 제주지역에 맞게 소화하는 융통성 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 목 차

국문초록 .....	i
I. 서론 .....	1
II. 문화 공간과 지역 .....	7
1.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 .....	7
2. 지역 문화와 지역 문화 공간 .....	15
3. 문화와 사회발전의 연관성 .....	17
III.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연구 .....	25
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	25
2. 영국 테이트 모던 .....	33
3. 프랑스 퐁피두센터 .....	40
4.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45
5. 소결 .....	51
IV.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공간과 제주 현대미술관 .....	52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문화적 특성 .....	52
2. 제주도 문화 공간현황 및 운영실태 .....	55
3. 제주도 현대미술관의 입지조건과 운영 현황 .....	59



1) 입지조건 .....	59
2) 제주현대미술관 운영현황 .....	60
3) 문제점 .....	65
<b>V. 제주현대미술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b>	<b>67</b>
1. 교육프로그램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	67
2.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 형성 .....	70
1) 저지문화예술인마을과 유대 .....	70
2) 해외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	70
3) 제주도 문화 네트워크 형성 .....	71
3. 제주도 소규모 문화단체와 연계한 문화 활성화 .....	72
<b>VI. 결론 .....</b>	<b>74</b>
<b>참고문헌 .....</b>	<b>78</b>
<b>도판 .....</b>	<b>82</b>
<b>Abstract .....</b>	<b>86</b>



## <표 목차>

<표 1> 문화 개념의 변천과정 .....	8
<표 2>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 .....	10
<표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 .....	11
<표 4> 미술관의 내·외 기능 .....	13
<표 5> 세대별 미술관의 역할 .....	15
<표 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괄표 .....	19
<표 7> 빌바오 전략 2010 .....	29
<표 8>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전후 차이 .....	30
<표 9>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10년간 경제적 효과 .....	31
<표 10> 빌바오 구겐하임 프로그램 콘텐츠 .....	33
<표 11> 테이트 모던 5년간 관람객 수 .....	36
<표 12> 테이트 모던 주민참여 프로그램 .....	39
<표 13> 테이트 모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	40
<표 14> 풍피두센터 콘텐츠 .....	45
<표 15> 21세기 미술관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공간 .....	48
<표 16> 21세기 미술관 공간 콘텐츠 .....	49
<표 17> 제주도 관광객 현황 .....	54
<표 18> 국가 지정 문화재 .....	55
<표 19> 도 지정 문화재 .....	55
<표 20> 제주도 문화기반시설 .....	58
<표 21>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예술인 장르별 현황 .....	60
<표 22> 제주현대미술관의 대안적 운영을 위한 개념 .....	64
<표 23> 제주현대미술관의 주요시설현황 .....	65
<표 24> 제주현대미술관 관람객 현황 .....	65



## <도판 목록>

<도판 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27
<도판 2>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	35
<도판 3>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	42
<도판 4>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47
<도판 5>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내부 .....	49
<도판 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	53
<도판 7> 제주현대미술관 전경 .....	60



## 서론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 마틴 파(Martin Parr, 1952~)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3년에 걸쳐 뉴브리튼의 리조트에서 촬영한 <마지막 유원지 The Last Resort>라는 작품에서 쇠락해가는 유원지에서 여가를 보내는 영국인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마틴 파의 사진은 쓰레기가 뒹굴고 지저분한 리조트에서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일광욕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당시 영국의 소비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였다. <마지막 유원지>는 소비사회의 풍요와 낭비, 소비와 욕망, 비이성적 문화 백태 등을 여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시리즈는 당시 영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을 풍자하는 사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본 논문은 여기서 영국인을 상징으로 한 인간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소비와 여가문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것은 문화의 향유가 인간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사회적 행위임을 시사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그 이전보다 월등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1, 2차 산업은 쇠퇴하고 관광, 문화, 정보 등의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다. 산업혁명 당시 1, 2차 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도시들은 산업의 쇠퇴로 도시마저 무너져 갔다. 쇠퇴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비계층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문화, 예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문화, 예술의 사회 발전 기여도에 주목하게 된다.

문화 산업을 통한 도시 재건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난 곳은 점차 늘어



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정세에 맞물려, 또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해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각 지역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한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543만 명에 이르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 관광수입은 2조 2천억에 달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가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00만 관광객 시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의 차별성을 두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지난 2007년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역시 제주도 경제활동의 주를 이루는 관광산업을, 애초에 주력했던 ‘개발’보다 ‘보존’에 힘을 싣고 관광산업의 범위를 문화산업으로 넓히고 있다. 2007년 9월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을 시작으로 2009년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 개관 예정이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2010년 완공 예정이며, 점차 부족했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적 감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적인 변화만큼 제주도민의 문화적 감성 고양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및 예정하고 있다. 도내문화행사인 탐라문화제와 4.3문화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제주국제관악제,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비롯해 2009년 9월 예정인 세계 텔픽 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제주도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국제적으로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



주도 내에서는 이렇듯 문화 예술 산업이 화두로 떠오르며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은 미술관이다. 제주도민은 물론이고 해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만의 문화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술관이다. 그동안 서귀포시에 두 곳 뿐이던 미술관이 2007년 9월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에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하면서 공립미술관이 세 곳으로 늘었고, 제주시에는 처음으로 공립미술관이 설립되었다. 제주현대미술관의 개관이 제주 문화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제주도립미술관의 개관이 2009년 9월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공간이 제주도 문화 예술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공간의 도입이 지역문화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논의하려는 제주현대미술관은 개관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신생 문화 공간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관련된 자료도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제시한 유럽의 문화 공간들과는 공간의 규모나 투자규모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제주도가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달라졌고, 또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시에 개관한 첫 번째 공립미술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와 각종 통계자료, 제주현대미술관에 의뢰한 미술관 내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역축제를



비롯한 중소도시 재생과 문화시설 도입에 관한 연구, 문화프로그램, 관광과 연계된 연구들이 많았다. 문화 공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역시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실버타운, 장애복지 시설 등으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제주도 문화공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문화공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인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주도내 미술관의 도입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도립미술과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가 있다.<sup>1)</sup> 이 연구는 도립미술관 건립 기획 연구부터 추진경과 분석을 통해 도립미술관의 기대효과와 기획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도립미술관의 개관이 4개월 여 남아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립미술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도립미술관의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sup>2)</sup> 양미경의 연구가 도립미술관 기획단계에 집중한 연구라면 황시권의 연구는 건립후의 활성화 방안을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더불어 개관 전인 도립미술관의 운영방안을 분석하기에는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었다.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는 심응섭의 논문이 있는데 그의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지역문화 이론 연구를 시작으로 해외사례를 통해 서해안의 내포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 등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으로 한정하여 설문조사분석을 시행하였다.<sup>3)</sup> 연구범위가 광범위하여 연구자가 제시한 대상의 구체적 정책 대안 모색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유희(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

---

1) 양미경,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 황시권, 「지역의 공공 문화 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3) 심응섭,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한 콘텐츠 연구는 유희(遊休)공간의 발생 원인부터 활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문화공간에 놀이와 소통의 의미부여를 시도했다.<sup>4)</sup> 또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유희공간의 재생과 그 가치를 제시했다. 해외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문화 정체성 확보와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문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문화지구 등 넓은 범위의 공간을 연구하는 경향을 띠고 있어, 본 논문은 앞서 제시했듯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한정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운영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보려 한다.

논문의 구성은 6장으로 이루어 졌다. 우선 2장에서는 문화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문화공간의 종류와 역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미술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공간과 문화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3장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해 지역문화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온 성공적인 문화공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스페인 빌바오시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빌바오시는 1980년대 경제 불황으로 몰락한 중공업도시로서 바스크정부의 도시 재건 계획으로 문화도시로 재탄생했다. 현재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시는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해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어서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하나로 계획되어 테이트 재단과 정부의 노력으로 개관한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테이트 모던 갤러리는 개관이후 현대미술의 대중화에 앞장서며 런던의 문화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퐁피두센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문화정책 중 ‘제2차 문화계획’의 일환으로 도시의 부정적이고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계획되

---

4) 박수정, 「유희(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었다. 파리는 풍피두센터라는 복합문화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자체의 이미지를 이어가면서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본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은 가나자와시의 문화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간으로서 기존의 전통을 이어가기 보다는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가는 발판으로서 가나자와 도심에 들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에 문화공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동시에 각 문화 공간의 성공적인 운영에 작용하는 공통적인 요인들도 파악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룰 제주현대미술관이 입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제주도내 문화공간의 현황과 각 문화공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어서 제주현대미술관의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5장에서 제주현대미술관에 적합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도내 미술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로 이어져 제주도가 시행하는 문화 예술 산업의 성공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 I. 문화 공간과 지역

## 1. 문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문화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왔으며 그 문화를 규정하는 개념 역시 다양하게 파생되어 왔다. 영국의 문화 이론가 윌리엄스(R. Williams)는 문화의 개념은 생활양식(a whole way of life), 지적·심미적 활동(intellectual and artistic activity), 상징체계(a signifying system)로 구분 하고 있다.<sup>5)</sup> 문화라는 개념은 1790-1850년 사이에 ‘정신활동의 소산’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넓은 의미로 확장되었다. ‘삶의 양식의 총체’라는 문화 개념은 제국주의 확산에 따라 여러 식민지 사회의 문화를 비교연구하기 위한 인류학적인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sup>6)</sup>

사회학자인 젠크스(C. Jenks)는 문화의 개념을 네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인식 범주로서의 문화이다. 문화는 정신의 일반적 상태로 이해되며, 이러한 문화 개념에는 완성이라는 관념, 즉 성취나 해방과 같은 개별 인간의 목표 혹은 열망이 적재되어 있다. 둘째, 보다 구체적이고 집합적인 개념으로서의 문화이다. 여기서 문화는 사회의 지적·도덕적 발달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문화를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퇴보’와 ‘진보’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을 보였던, 인류학을 창시한 ‘초기 진화론자들’로 알려진 사회이론가들이 보았던 문명 개념과 연결

5)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24.

6) 양현미 외,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p.68.



시키려는 입장으로서 19세기 제국주의와 연결되었다. 셋째, 기술적·구체적 범주로서의 문화이다. 이때 문화는 한 사회의 예술 및 지적 작업의 총체로 간주된다. 이것이 바로 흔히 ‘문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의미하는 바이며, 여기에는 특수성, 배타성, 엘리트주의, 전문지식, 사회화 등과 같은 의미들이 적재되어 있다. 이는 비록 한 사회의 비의적(秘儀的)인 상징체계일지라도 생산되고 침적된 상징 영역이 문화라는 확고히 정립된 통념이다. 넷째, 사회적 범주로서의 문화이다. 이때 문화는 한 종족의 전체 생활방식으로 간주된다. 이 문화 개념은 사회학과 인류학, 그리고 그 뒤보다 국부적인 의미로 문화연구에서 주요 관심 영역이 되었던 다윈주의적이며, 잠재적으로 민주적인 문화 개념이다.<sup>7)</sup>

차츰 문화의 개념은 다양하게 변형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와의 연관성은 변함없다.

문화와 사회의 연관성은 다음 <표1> 문화 개념의 변천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구분	주요시기	정의
어원적 정의	봉건제	문화는 토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문명론적 정의	18세기	문화는 정신적·심미적 발전의 일반과정
예술·교양론적 정의	19세기	문화는 지적·예술적 활동의 산물이나 실천
생활양식론적 정의	20세기	문화는 한 인간이나 시대 혹은 집단이 공유하는 특정 생활양식
의미체계론적 정의	20세기 후반	문화는 사회질서가 전달·재생산·체험·탐구되는 공유된 의미체계

<표1> 문화 개념의 변천과정<sup>8)</sup>

7) C. Jenks,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현대미학사, 1996), pp. 25-26.

8) 이무용, 『공간의 문화 정치학』 (서울, 논형, 2005), p. 365.



이렇듯 문화의 개념은 사회적 생활양식, 의미 체계, 심미적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지지만 그 개념이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문화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읽히게 된다.

2005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화관련 학계의 교수 및 연구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화를 어떻게 개념화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이었다. 심층면접조사로 실시되어 사회과학분야 21명(70.0%), 문화예술 분야 5명(16.7%), 공공연구기관 종사자 4명(13.3%)으로 총 30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문화를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생활양식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민족의 생활양식, 전통, 풍습, 가치관으로부터 예술, 이데올로기, 언어, 기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양태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 응답자별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정치행정학 관련 학자	문화를 민족의 생활양식, 전통, 풍습, 가치관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적·물질적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경제경영학 관련 학자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또는 통용하는 관심, 규범으로부터 언어, 종교, 학문, 예술, 소비, 놀이, 학습 등 생활양식의 과정 및 정신적·물질적 소득 등
사회학자	규범적 요소(민습, 법, 금기, 가치, 윤리 등) 평가적 요소(고급예술, 대중예술 등) 인지적 요소(과학, 이데올로기, 신념 등) 상징적 요소(언어, 기호 등 상징으로 표현된 것 등) 등으로 구성된 생활양식 등의 총체
예술학 관련 학자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신념체계이자 인간의 자율성에 따른 행동양식과 창의성 등 정신적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
공공기관 연구원	광의의 개념 :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회적 요건 협의의 개념 : 일 이외의 여가생활을 인간답게 누리도록하는 여건의



	<p>총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양태로 역사성과 전통성, 공공성과 공동체성, 미학성과 예술성, 고유함, 특화성, 장소성, 저체성 등의 특성을 갖는 개념</p>
--	--

<표2>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sup>9)</sup>

한정된 조사대상이었지만 위의 결과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넓은 의미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의 개념이 다양한 만큼 ‘문화 공간’의 개념 역시 다양하다. ‘문화가 행해지는 장소’로서 문화 공간의 범주는 미술관, 박물관, 극장 등은 물론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국제회의장을 비롯해 문화시설과 공원이나 거리를 포함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공간은 <표3>과 같이 정리된다.

문화 공간은 사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같이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문화 공간역시 변화, 확장한다. 사회구성원인 시민들 가까이에 자리한 문화 공간은 시민들의 문화적 만족도에 맞춰 그 영역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공간적 구성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로 향유 영역은 폭넓게 진화했다.

9) 정갑영 외,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pp.10-12.



공연시설	공연장 :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문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기타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표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sup>10)</sup>

10)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참조정리 [www.mcst.go.kr](http://www.mcst.go.kr)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미술관(art museum/gallery etc.)이란 용어는 미술품을 매개로 특정분야의 문화공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미술관은 넓은 의미의 박물관 속에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sup>11)</sup> 현재 국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sup>12)</sup> 미술관이 사회에 도입 되고 발전되어 오면서 미술관은 대체로 <표4>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수집	조사	전시	교육	공공	관리
보존	보존과학 활동	수집정책 및 기획	전시보존환경	보존과학 교육		수장고환경 보전방재 관리
연구	조사발굴 학예연구 지원	연구정책 연구평가	전시기획 전시자료 개발	교육활동 지원	미술품 감정	연구환경 관리 조직관리
전시 보급	전시자원의 수요공급 관계	전시관람객 분석/피드백	전시개발 전시평가 소장 자료의 교환 및 대여	전시와 교육 활동의 연계	뮤지엄 습 상품개발 복제품 개발지원	보안관리
특별 활동	교육활동 지원 소장품의 제공	전문가 재교육	교육 자료의 공유	교육정책 수장자료의 대여	이벤트 기획	활동환경 관리
공공 봉	소장자료 제공	외래연구 지원	전시 전달 해석	전시홍보	관람객 서비스의 평가	이용자 유치

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백서 2005』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2006), p. 3.

1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2조 2항.) [www.mcst.go.kr](http://www.mcst.go.kr)



사					전진적 모색 공공봉사의 질 유지	
경영	수집예산 수집환경보 전	연구 성과의 사회화	전시 섭외	정규교육 섭외 사회교육 섭외	관객유치 수익성 검토	수익사업

<표4> 미술관의 내·외 기능<sup>13)</sup>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세계 미술의 흐름과 문화공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미술관은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후생, 복지 등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sup>14)</sup> 또한 많은 변화를 거쳤고, 특히 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명소 프랑스에서는 관람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 기획전시의 개최와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 관련도서 자료실을 기본으로 하여, 만남과 대화의 장소 그리고 휴식 공간 등과 같은 서비스 기능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 음향연구소 등의 다양한 예술영역을 함께 묶어 종합적인 예술 공간을 이루었으며 아울러 서적판매부, 대형식당, 커피숍 그리고 아트숍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술관을 현대생활의 살아 있는 공간 자체로 변모시키고 있다.<sup>15)</sup> 이것은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문화예술정책 사업으로 탄생한 퐁피두문화예술센터가 단순한 미술 공간, 문화공간으로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종합문화공간으로서 프랑스인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과의 연관성을 시사해 준다.

13)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 미술관진흥정책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5), p. 10에서 재인용.

1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백서 ,2005』, (국립현대미술관, 2006), p. 5.

15) 위와 같음.



이렇게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 속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커질수록 그 기능은 확대되어 간다. 단순한 전시공간이라는 근대적 기능을 탈피한 현대 미술관들의 기능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다. 이전에는 평가가 끝난 기존의 예술품들이 주요 대상이었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현대 예술품들을 작가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미술관은 국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고양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성장하는데 한 축을 담당한다. 문화예술은 이미 산업으로의 확장이 일어났고, 미술관은 문화산업의 중심에 위치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술관 관람객 수요를 늘리는 것 뿐 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매개체로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자연스럽게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전시 관람이라는 1차적인 행위를 벗어나 휴식과 교육이라는 기능을 파생시킨다. 예술품 학습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의 밑바탕이 된다.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체험학습과 열린 공간에서의 활동은 다양한 범위로의 개념 확장과 미적 안목의 성숙, 비판적 사고 등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항목	제 1세대	제 2세대	제 3세대
목적	보존 지향	공개 지향	참가체험지향
설립이유	보물의 보존시설	시문화의 심벌, 컬렉션의 기준 공개	지역사회의 요청
이용형태	오락, 관광	일관성의 견학	연속적인 활용
일상성과의	괴리(별세계의	부분적인	대상화(과제를 제시)



관련	제시)	관계(도입으로서의 제시	
건물	창고 중심	전시물 중심	사업 중심
설계의 중심	위압감을 중시	외관을 중심	기능성을 중시
공개, 교육	전시이외에는 없음	전시 중심	사업 중심
전시의 형태	상설전	상설전과 특별전의 조합	참가, 체험형의 전시(演示, 레프리카 등의 전시연출)
전시의 양	소수의 실물	선택할 정도는 아닌 전시물	충분히 선택 가능한 충분한 전시물
전시의 해설	-	일과성 사업 중심	Reference Corner의 설치
교육사업	-	간혹 개최 하나 참가자는 수동적	계속적인 사업 중심
강연회 학습시설, 설비의 개방	-	-	문제제기를 중심으로하는 심포지엄과 기록의 출판 도서관, 학습실, 실험실 혹은 특별전시실의 개방과 충실

<표5> 세대별 미술관의 역할<sup>16)</sup>

## 2. 지역문화와 지역문화 공간

지역문화에서 지역은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다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sup>17)</sup>

16) 이소진, 「현대미술관의 공간 구성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31에서 재인용.

17) 심응섭, 앞의 논문, p. 9.



를 말한다. 지역은 내부결집력을 통해서 타 지역과 구별되고 가치와 제도, 활동 등에서 동질성을 갖는다. 지역문화란 이렇게 지리적으로 공동체집단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활동을 통칭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주민들의 가치관이 포함되어있는 지역고유의 문화를 말하며 각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생활양식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 창작문화 등을 포괄하고, 지역들이 지리적이거나 언어적, 환경적인 요소로 구별되듯이 지역문화역시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관, 생활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역문화는 이렇게 각 지역의 특성을 담아내 독특하고 개성 있게 발전해 왔다. 하지만 각 지방의 뿌리와 전통,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대도시의 문화와 서구문화가 유입되면서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독특한 지방색이 자칫 흐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지역문화는 하위개념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해야 할 중요한 문화이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문화공간은 지역시설과 문화시설 두 가지 개념을 근거로 지역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공동체적 지역문화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시설로 구현된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지역주민이나 지역주민들로 조직된 동아리나 단체들이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취미활동이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하여 함께 연습하고 그 연습한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발표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한 시설과 부업 등을 위한 자격증 취득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sup>19)</sup> 지역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18) 정지영, 「지역 문화시설의 공급과 건축공간 구성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5.

19) 심응섭, 앞의 논문, p.18.



실정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지역 내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기반시설로 통칭되는 문화공간들은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의 고른 발전을 이끌어내고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문화적 행위의 기반인 문화 공간의 확충이 균형을 이루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3. 문화와 사회발전의 연관성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시대와는 달리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경제학자 아르조 클래머(Arjo Klamer)는 문화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문화경제학적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자본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여러 가치들 사이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기존의 경제주의적 접근과는 다르게 문화적 차원을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차원을 인정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추구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점에 문화경제학적 접근의 중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가 평가되고 통용되는 각기 고유한 차원들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에 고유한 상이한 가치평가(valuation)를 활성화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가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학자들이 생각 하듯이 깔끔하게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란 속고와 협상과 비중투기와 위계화 등을 포함하는 논란(정당화)의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종 무의식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하나의 가치평가를 정당화하는 이유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가치평가의 명시화’(evaluation)라고 한다. 또한 시장가격이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하나의 ‘가치의 확정 및 실현’(valorization)의 방법이 가치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이것은 ‘경제학의 하이젠베르크 원리’라고 한다. 즉, 한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그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문화경제학은 문화적 가치평가(와 탈평가)의 경제적 계기를 포함하는 문화적 재화의 ‘역동적 삶’을 해명해야 한다.<sup>20)</sup>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들은 모두 연결고리를 맺는다. 경제적 가치에도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듯이 사회적 가치에도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문화적 가치에도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와 문화적 활동, 그 활동의 산물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끄집어 낼 수 있으며, 이것은 문화가 사회 전체에 어떻게 포함되고 연결되어 있는 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화가 갖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문화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문화의 내재적 가치는 공공정책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 문화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문화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문화 효과 연구가 확대되었다. 문화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창의적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사회적 효과의 연구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

20) 양현미 외, 앞의 논문, pp. 67-68.



사도	합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원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박 물 관				미 술 관						
						소 계	공 공	사 립	대 학	소 계	공 공	사 립	대 학			
계	1,618	607	356	227	24	625	511	252	180	79	115	25	87	3	161	225
서 울	221	69	40	22	7	115	85	15	48	22	30	1	27	2	13	24
부 산	55	27	11	12	4	13	10	4	1	5	3	1	1	1	6	9
대 구	40	16	2	12	2	8	8	3	2	3	0	0	0	0	8	8
인 천	41	16	8	8	0	12	9	5	4	0	3	1	2	0	5	8
광 주	32	13	8	5	0	10	6	4	0	2	4	1	3	0	4	5
대 전	42	16	14	2	0	19	15	3	6	6	4	2	2	0	2	5
울 산	17	8	4	4	0	2	2	1	0	1	0	0	0	0	2	5
경 기	275	117	98	10	9	103	80	32	41	7	23	4	19	0	24	31
강 원	133	44	22	22	0	58	53	37	11	5	5	3	2	0	13	18
충 북	83	28	13	15	0	35	30	19	6	5	6	2	4	0	8	12
충 남	113	46	26	20	0	38	33	19	12	2	5	0	5	0	12	17
전 북	92	38	20	17	1	25	22	15	2	5	3	2	1	0	15	14
전 남	122	50	30	20	0	36	26	20	4	2	10	2	8	0	14	22
경 북	153	53	25	28	0	60	55	36	8	11	5	1	4	0	17	23
경 남	129	45	21	24	0	48	44	28	13	3	4	2	2	0	16	20
제 주	70	21	14	6	1	43	33	11	22	0	10	3	7	0	2	4

(2007.12.31기준)

<표 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괄표<sup>21)</sup>

21)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를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론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아직은 취약 단계이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사회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맞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이 완성되리라고 본다.

문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경제적으로는 고용창출, 소득 증대, 투자 촉진 등이며, 사회적으로는 환경개선, 사회적 자본 및 사회 응집력 제고, 인적자본 제고 등이다. 문화적으로는 정체성 강화, 문화적 가치관 확산 및 문화다양성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2008년 문화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7년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의 규모는 58조6,147억원으로 2006년 57조9,385억원보다 약 1.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산업 종사자 규모는 2007년 45만8,910명으로 2006년 문화산업 종사자수 43만6,685명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경제적 효과를 비롯해 고용창출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문화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활용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의 파급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지역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총리 직속인 사회배제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1999년부터 문화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문화와 고용, 문화와 건강, 문화와 교육, 문화와 범죄예방이라는 4가지 분야에 문화라는 핵심을 두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낙후지역 재생을 위해

---

22) 양현미 외, 앞의 논문, p. 98.

23) 문화관광부, 『2008년 문화산업통계 (2007년 기준)』 (문화관광부, 2009), p. 73.



‘문화주도 재생 (culture-led regeneration)’, ‘문화적 재생(culture regeneration)’, ‘문화와 재생 (culture and regeneration)’ 세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sup>24)</sup> 문화주도 재생은 문화활동이 지역 재생의 촉매이자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지역사회에 사회응집력 향상,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제고, 정체성 제고, 미래 비전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재생은 문화활동이 지역재개발 계획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문화와 재생은 문화활동이 지역재개발 계획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문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기여도는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그 효과는 대도시나 세계의 여러 도시 사례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2006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에서는 지역에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약 요인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

첫째는 문화산업의 대도시 지향성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산업의 핵심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의 성장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 내 원 소스 멀티유스(OSUM one source multi-use)<sup>25)</sup> 전략의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단위로 내려갈수록 ‘문화산업’과 ‘문화예술’의 구분이 필요하며, ‘OSUM’나 ‘윈도우 효과(window effects)’와 같은 다른 형식의 문화콘텐츠들의 상호 연계성이 높지 않다. 음악 연주, 연극, 뮤지컬, 미술품 전시, 전통문화 공연 등의 공연예술

24) 양현미 외, 앞의 논문, p. 109.

25)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 하나의 소재를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그 파급효과를 노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문화산업계의 온라인화와 디지털 콘텐츠화가 급진전되면서 각 문화상품의 장르가 무너지고 매체간 이동이 용이해지면서 다양한 장르를 망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그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과 출판, 만화, 음반,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 사이의 연계는 각계의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서는 종종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단위로 내려가면 공연예술과 문화산업 사이의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대중적인 성공을 이룬 작품이 나올 경우 장르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미루어봤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는 생산자 지향형 산업 육성의 한계이다. 문화산업의 구분을 ‘생산 중심 산업’과 ‘소비 중심 산업’<sup>26)</sup>으로 나누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획, 창작, 제작을 수행하는 생산자 중심형 문화산업의 육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우위성 확보가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외에서 수요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쉽지 않다.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위해 생산자 중심형 문화산업과 소비 지향형 문화산업의 상생관계를 설정하고 각자 다른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기반이 약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26) 생산자 중심 문화산업과 소비자 중심 문화산업

구분	주체	주요특성	형성가능 클러스터	공간적 특성
생산자 중심 문화산업	기업	기업이 주체가 되어 문화콘텐츠의 기획/창작/생산/유통을 주도하는 산업군으로서 제조업에서처럼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 - 게임,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광고,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생산자(기업) 중심형 클러스터 - 기획/개발 중심 - 제작(OEM)중심	생산 - 지역내 소비 - 지역외 (콘텐츠의 원심성)
문화산업	개별 창작인력 기업	콘텐츠의 상품화와 유통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지만, 콘텐츠의 창작 과정에 프리랜서로서 창작인력의 기여도가 매우 큰 산업군 - 영화, 방송, 음악, 만화, 출판 등	생산자(창작인력) 중심형 클러스터 - 기획/개발 중심 - 제작(OEM) 중심	생산 - 지역내 소비 - 지역외 (콘텐츠의 원심성)
소비자 중심 문화산업	개별 창작인력 기업	예술적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관객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군으로서, 예술 및 관광산업을 포함 - 공연기획업, 공연예술업, 콘텐츠유통매체운영업(극장, 갤러리, 공연장, 테마파크, e-sports시설) 등	소비자 중심형 클러스터 (유통) - 예술시설형 - 관광시설형	생산 - 지역내 소비 - 지역내 (콘텐츠의 구심성)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저,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육성방안 제1부 : 종합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p. 101.



지역문화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생겨났다.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중소도시에 생겨난 문화시설, 드라마세트장, 컨벤션센터, 영상단지 등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공간들로,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은 미비한 가운데 추진된 사업이 되었다. 그 결과 중소도시에 생긴 문화시설들은 빈 공간으로 남겨지고, 지역축제의 폐단 등 성공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제반 영역에서도 지역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타났다. 1999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조성된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적극적인 행정전략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 심응섭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대해 ‘지역문화의 가치와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주체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sup>27)</sup>이라고 정의한다. 문화적 성장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정체성이 확보되고, 문화적 배타성과 자존감을 통해 고유의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 자연스럽게 지역문화가 발전 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지역문화가 비단 ‘문화’의 하위개념이 아닌 세계 문화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지역문화가 사회통

---

27) 심응섭, 앞의 논문, p. 25.



합의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II. 문화 공간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연구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경제권을 장악하던 유럽의 대도시들은 경제 불황 이후로 공황기를 맞고 여러 중소도시들이 침체기를 맞는다. 잃어버린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주요 국가에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지역 문화 활성화로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낸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1) 배경 및 형성과정

스페인의 공업도시였던 빌바오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자치주 해안지역에 위치한 스페인 최대 항구이자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15세기 도시가 형성된 이래 1970년대까지 조선소와 중공업이 주를 이루어 전성기를 누리던 빌바오는 1980년대 경제 불황 이후 중화학 산업의 침체로 도시가 몰락해갔다.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빌바오 산업고용은 25%감소했으며<sup>28)</sup>, 자연스럽게 경제부문의 침체는 물론 사회,정치적 문제 및 환경문제까지 야기되었다.

계속되는 도시의 몰락으로 위기감을 느낀 바스크주 자치정부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건을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86년을 시작으로 이후 1988년 빌바오 마스터플랜 컨퍼런스(Conference Bilbao

28) 장혜영,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영국의 셰필드, 스페인의 빌바오, 한국의 부천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 112.



Master Plan General :1988), 1989년 빌바오 도시재건 포럼(Forum Bilbao on Urban Renewal :1989) 등 중요한 심포지엄과 포럼을 통해 다양한 도시재건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실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스크 정부는 문화를 통한 도시 재건의 돌파구를 발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발전과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도시 쇠퇴 이후 슬럼이 되어버린 네르비온 강 주변의 항만과 공업지역 재개발 계획에 문화시설 도입이 포함되었다. 도시 중심에 근접한 아반도이 바라 지역의 11만평에 이르는 항만, 창고, 화물철도역에 미술관, 컨벤션홀, 음악당이 들어서는 대규모 계획이 수립된다. 미술관은 당시 국제적인 미술관과 문화재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던 솔로몬 구겐하임 문화재단이 바스크정부가 제시한 도시 재건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구겐하임 미술관의 구체적 향방이 나타난다. 당시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럽 분관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스크 정부가 미술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에 나선 것이다.

1991년 2월 바스크정부가 구겐하임 재단에 도시재건 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992년 바스크정부와 비스카이아 시의회간의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구겐하임 재단과 랜드마크를 향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1996년 구겐하임 재단은 1997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바스크지역의 사회기금 1억 달러가 들어간 구겐하임 미술관이 1997년 10월 개관하게 된다.

## 2) 운영 방안 및 특징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면서 개관 후 25년간 바스크정부가 건설비용은 물론 작품구입비, 인건비 등 모든 제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



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바스크정부의 노력과 체계적 전략은 미술관 유치뿐만 아니라 도시재건 전반적인 계획에 나타난다.



<도판 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바스크 지역의 도시 마케팅을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빌바오의 경제, 문화 및 정치, 행정적인 도시특성이 도시의 문화정체성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정립했다. 둘째, 바스크 지방 15개 중소도시의 지역적, 사회적 균형, 주거지, 일하는 곳, 휴양지와의 균형 등에 대도시와의 통합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도록 했다. 셋째, 바스크 지방의 160개 시골 마을의 독특한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활용했다. 넷째, 바스크 지방의 도시나 마을 외곽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여 자연의 자산 가치를 높였다. 다섯째, 다른 인접 도시들과 도로, 항만, 공항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sup>29)</sup>한다는 통합계획 아래 이루어졌다.

바스크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차별화된 전략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 그들만의 문화전략으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바스크 정부는 스페인 중

---

29) 곽수정, 앞의 논문, p. 135.

양정부와 바스크 주 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세운 개발공사인 ‘빌바오리아 2000’과 바스크 지역의 130여 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으로 이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빌바오리아 2000’은 빌바오 도시 재편의 출발지점으로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의 버려진 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실행조직이다. 버려진 공유지에 호텔이나 주택단지를 개발해 민간에 분양하고 이후 생기는 수익금 대부분을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 시민운동장을 조성하고 전철 건설이나 다리를 잇는 공사비용을 사용한다.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은 1991년 결성되었으며 이해관계에 따른 정부, 은행, 대학, 정유회사, 철강회사, 철도공사, 건설회사, 미술관, 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속해 있다. 이 조직에는 80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소속되어있다.

### 3) 성공 요인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

빌바오의 이러한 성공은 비단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들어섰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바스크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과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이다.

바스크 정부는 도시 재건 계획 초기부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빌바오 2010 전략’에서도 그 중요성을 드러낸 바있다.

스페인 빌바오의 전략적 핵심	- 활동적이고 헌신적 리더십이 제1의 핵심 - 아이디어를 모으고 분별하는 능력 - 통찰력 있는 시각과 정보 분석
시민들과 이들의 가치	- 시민들은 제 2의 핵심 - 도시의 재건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보와 혁신	- 정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바탕



	- 혁신은 커뮤니티 전체에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과정
네트워킹	- 개인, 기업, 기관의 성공은 커뮤니티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됨 - 정보기술의 발전은 커뮤니티의 경계를 허물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함
삶의 질	- 도시 발전의 핵심은 살고 싶은 도시 건설 -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능력있는 전문가영입

<표7>. ‘빌바오 전략 2010’<sup>30)</sup>

제2의 핵심은 ‘시민’이라고 했을 정도로 관광객유치만큼 시민들의 참여에 중요성을 둔 바스크정부는 미술관 개관 이전인 1995년에 지하철 개통은 물론 네르비온 강 인도교와 페드로 아루페 다리까지 지역 시민들의 쉬운 접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보수하였다. 또한 아반도이라마 동쪽 옛 도심과 연결된 3km에 달하는 산책로를 조성해 그곳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 또는 자전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술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미술관의 접근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였고,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곽수정은 앞서 언급한 바스크정부의 제반비용부담이라는 파격적인 지원 역시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이다. 이처럼 문화공간의 도입으로 도시 자체를 문화도시로 변화시킨 이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조사에 따르면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이후 6년간 빌바오시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5천억 원에 이른다.<sup>31)</sup>

30) 앞의 논문, p. 137.

31) 위의 논문, p. 138.



	개관이전 (‘94.1~‘97.9) (한달평균)	개관이후 (‘97.10~‘99.7) (한달평균)	전후차이	
			증감수	증감율
전체 방문객(명)	83,893	112,887	28,989	34.6
외국인 방문객(명)	22,175	32,058	9,883	44.6
평균 체류일(일)	1.87	1.83	-0.04	-2.1
1박이상 체류일(일)	159,009	207,909	48,900	30.8
호텔 점유일(%)	37.8	45.5	8	20.0
구겐하임 방문객(명)	-	97,953	97,953	-

<표8>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개관 전후 차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이후 매년 경제 기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화공간의 도입과 문화도시로서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98년 개관 1주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의 관광객이 당초 예상인 5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136만 명에 달했고,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27%에 이른다. 방문객에 대한 전시회, 소장품의 교육 프로그램역시 예상했던 5만 명의 두 배를 뛰어넘는 13만 명이 참여했다. 따라서 편의시설인 레스토랑역시 자리가 부족하여 시설을 확장해야 했으며, 홍보물을 포함한 의류, 지류, 보석, 장신구 등 3,800여 품목의 수입역시 1년 예상수입이 6개월 만에 돌파했다. 이렇게 개관 이래 1년 동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136만 명에 의한 소비는 바스크 지역경제에 1년간 1억 6천만 달러(한화 1600억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7년 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개관 이래 미술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약 5백만 명을 포함한 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



갔으며, 한 해 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문객의 90%가 바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의 거주자로 이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 효과	1997	1998	1999	2000
직접지출	40,568,317	190,400,635	202,799,514	191,903,165
평균GDP	31,517,075	147,921,099	157,555,323	149,087,063
고용	832	3,906	4,161	3,937
국가수익	5,871,888	27,562,415	29,359,441	27,784,790

연도 효과	2001	2002	2003	2004
직접지출	149,724,135	143,706,595	153,745,225	163,711,085
평균GDP	168,331,470	162,327,827	173,089,191	184,046,738
고용	4,415	4,265	4,547	4,842
국가수익	26,949,383	25,988,685	27,711,580	29,465,882

연도 효과	2005	2006	2007	합계
직접지출	165,835,281	233,621,942	242,986,389	1,879,002,283
평균GDP	186,197,551	211,633,296	220,240,289	1,791,946,922
고용	4,893	4,232	4,399	4,370
국가수익	29,810,227	28,822,339	29,994,526	289,321,156

(단위 : 유로(€))

<표9>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10년간 경제적 효과<sup>32)</sup>

바스크 지역의 경제는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도시로의 변화이후

32) 문지윤,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7), p. 43에서 재인용.



많은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약 2억 4천만 유로(한화 3천 7백 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GDP역시 약 2억 2천만 유로(한화 3천 4백억 원)로 1997년 개관당시에 비해 5배정도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수익으로 약 3천만 유로(한화 450억 원)에 달하는 이윤을 남겼으며, 4천 300여개의 직업을 창출하고,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유명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O. Gehry)가 설계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자체로서도 큰 힘을 갖는다. 공간은 전시영역과 지원시설, 편의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편의시설은 별도의 출구를 두어 미술관 개장시간과 상관없이 운영되도록 해 건물 자체의 활용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2005년 조성된 500평 규모의 미술관 옆 놀이터는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구를 갖춰 빌바오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공간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등 단계별 맞춤형 참여프로그램과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프로그램과 교육자 프로그램을 따로 두어 다양성과 전문성까지 갖춘 프로그램 콘텐츠가 운영되고 있다.

쇠퇴한 공업도시였던 빌바오시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상징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문화도시로 급부상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경제적인 성공은 물론 쇠퇴한 공업도시에서 낙후되어가는 삶에 낙담했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프로그램 콘텐츠	
학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생 프로그램</li> <li>• 초등학생 워크샵 및 가이드 투어</li> <li>• 중등부 프로그램</li> <li>• 예술교육 투어</li> <li>• 어린이와 장애우를 위한 투어</li> </ul>



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이드 투어</li> <li>• 오디오 가이드</li> </ul>
가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orkshop visits</li> <li>• Art and Technology</li> <li>• Family activity guide</li> <li>• Show</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퍼런스</li> <li>• 그 외 각종 활동</li> </ul>
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9월 중 2주에 걸친 영화페스티벌</li> </ul>
감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y concepts Curatorial vision</li> </ul>
BOS 콘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빌바오 구겐하임 오케스트라</li> </ul>
교육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가이드</li> <li>• 오리엔테이션 세션</li> <li>• 현대미술 과정</li> </ul>

<표 10> 빌바오 구겐하임 프로그램 콘텐츠<sup>33)</sup>

## 2. 영국 런던 테이트모던

### 1) 배경 및 형성과정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던 영국이 국가적 영향력이 쇠퇴하자 만국박람회 때의 영광과 새롭게 발돋움할 ‘밀레니엄 프로젝트 (Millenium project)’를 추진했다.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새천년 계획의 하나로 정부와 새천년 위원회, 개인의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영국의 문화 미디어 및 체육부(DCMS :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 주관한다. 1993년 정부 산하 단체로 밀레니엄 위원

33)곽수정, 앞의 논문, p. 140에서 참조.



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고, 민간 또는 공공단체들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리니치 지역에 세워질 밀레니엄 돔(Millennium Dome), 시내 한 가운데 런던 조망권을 갖는 런던 아이(London Eye), 100년 만에 런던에 건설되는 템즈 강의 남, 북을 잇는 밀레니엄 브릿지(Millennium Bridge), 밀레니엄 브릿지 앞에 세워질 테이트 모던 갤러리(Tate Modern Gallery)이다. 이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수도 런던에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영국을 세계에 과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미국의 모마(MOMA, The Museum of Modern Art)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의 21세기 미술경영전략의 하나였다.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는 1897년 밀뱅크(Milbank)에 들어선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을 시작으로 1988년에 리버풀에 1993년에 세인트 이브스에 분관을 설치했다. 영국정부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더불어 현대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의 부족으로 테이트 모던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2000년 5월 12일 세계 최대의 단일 갤러리인 테이트 모던이 템즈 강변에 개관하게 된다. 개관 후 테이트 모던은 런던의 문화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현대 미술을 대중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 2) 특징

테이트 모던은 런던의 템즈 강 서남쪽 사우스 워크에 위치한뱅크사이드 발전소를 리노베이션 했다.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1963년에 영국의 유명 건축가인 자일스 길버트 스코트 경(Sir Giles Gilbert Scott)이 설계한 것으로, 런던 시내에 전력을 공급해오던 오래된 건물이다. 1891년 이후 가동이 중지되어 사실상 죽은 공간이 되어버렸고, 주변 환경마저 슬럼으로 변하여 노



숙자, 범죄자가 늘어 영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공간이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의해 현대 미술의 주요 거점지로 탈바꿈되고,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도 정화되었다. 발전소와 더불어 골칫거리였던 물류창고 역시 박물관으로 변신하고 그 주변에 주거단지는 물론 크고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들어서면서 도시는 문화도시로 재탄생되었다.

당시 테이트 재단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미술관계자들의 반대로뱅크사이드 발전소를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다. 1994년 국제건축현상설계를 공모하여 당선된 세계적인 건축가 자크 헤르그조와 피에르 드 뮈롱이 설계한 테이트 모던은 오래된 발전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친숙함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판2>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공사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10년에 이르는 장기 기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전통과 변화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성공을 이끌어냈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뱅크

사이드 지역 개발 계획 중심에 테이트 모던을 위치시켰다. 거리환경은 물론 지역 정체성 강화와 각 지역을 잇는 보행자들의 연결성을 증가시켜 보다 나은 편의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약 7년여의 공사기간과 1억 3천 4백만 파운드 (한화 2천 6백 8십억 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 예산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발매된 국립 복권과 밀레니엄 프로젝트 예산 등의 공공 예산, 테이트 총 관장인 니콜라스 세로타 경(Sir Nicholas Serota)이 확보한 자원으로 이루어졌다.

### 3) 성공요인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

테이트 모던이 개관한 2000년 한 해 동안의 영국 박물관, 미술관 방문객 수는 20%정도 증가했다. 대영박물관과 함께 런던의 명소로 급부상한 테이트 모던은 전체 관람객 중 70%가 영국인이며 그 중 반 이상이 지역 거주자로 영국인의 관심과 애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이트 모던은 개관 이후 5년의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 「Tate Modern : The First Five Year」에 따르면 2000년 개관이후 한 해 평균 4백만 명 이상의 방문객수를 기록하며 2005년 4월까지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4월)
관람객수	4,819,469	3,774,513	4,377,406	4,226,335	4,147,549	122,392

(2005. 4. 11. 기준)

<표11> 테이트 모던 5년간 관람객 수

이러한 변화는 연간 8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리며 경제적 이익 창출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사우스 워크 지역의 직업 절반에 이르는 2천 4백여



개의 새로운 직종을 창출했다. 이로써 사우스 워크 지역이 장기적인 침체로부터 탈피하고, 런던이 현대 미술의 메카로 입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간이 되었다.

또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2001년 매직 미(Magic Me)라는 교육 예술 자선단체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모아 지역사회와 공간의 소통을 위한 회의를 주최하였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산책길과 수도 공급 등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공동체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오픈 공간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자선단체인 보스트(Banksice Open Space Trust)가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영국정부는 국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기획전을 제외한 미술관의 모든 전시를 무료개방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휴식의자를 마련하고 곳곳에 오디오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하면서도 전시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테이트 모던의 오디오 투어는 총 3종류로 바넷 뉴먼(Barnett Newman),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등의 작가별로 제공되어 작가에 대한 논평, 역사 기록들, 비평가, 음악가, 학자, 작가들의 감상 등이 포함되어있는 소장품투어가 있고, 전시 작품 중 하이라이트에 대한 관장의 개인적 관점을 제공한 디렉터 투어가 있다. 또한 작가인 마이클 로젠(Michael Rosen)이 녹음한 것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어린이 투어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테이트 모던에서는 강좌, 코스, 영화,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무료 갤러리 관람과 강좌와 학교, 가족, 지역사회 대상 프로그램, 15세에서 23세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매일 진행 된다. 그중 가족 프로그램을 주로 주말과 휴일에 진행시



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아트트롤리 (The Art Trolley)’는 어른을 동반한 어린이와, 어른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시되고 있는 많은 회화와 조각품들을 기본으로 스텝들의 다양한 범위의 그림, 만들기와 게임 활동을 진행한다.’<sup>34)</sup> 대영박물관과 테이트 브리튼, 테이트 모던을 순회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상대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테이트 모던과의 연계성을 높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주민참여프로그램	내용
Community Consultation	2001년 매직 미(Magic me)라는 교육 예술 자선단체는 젊은 층과 노년층에 걸친 여러 사람들을 모아 이 지역사회가 이 공간에서 어떤 기락을 발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회의를 주최하였다. 정원을 디자인한 루시 윌리엄스(Lucy Williams)는 이처럼 지역 사회가 원하는 산책길이나 수도 공급, 모자이크, 조립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을 만드는 역할을 테이트로부터 위임 받았다.
Bankside Open Spaces Trust	보스트(BOST)는 2004년도에 이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다. 보스트는 지역 공동체를 개선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과 오픈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고 협력하는 단체이다. 이 구역은 다수의 공원과 오픈 공간이 있으며 보스트는 이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쓰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Current Developments	지금까지 이 공간은 지역 공동체 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테이트에서 운영하는 경비팀이 이 지역의 보안 상태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런던 와일드 트러스트(London wildlife trust)는 최근 연못과 옥외 화장실 구역을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절충하였다. 리버우드라는 목재를 재활용하는 단체는 그리니치 맨캡(Greenwich mencap)이라는 회사와 협력하여 오두막과 페르골라(덩굴 등이 덮여 있는 정자), 그리고 정원 벤치들을 설치하였다.

34) 윤혜원,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연구 : 국내외 주요미술관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pp. 47-48.



Background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사람들이 이곳을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지역의 특징을 살린다면 좀 더 녹색지대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원은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며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자연과 더 가까워지며 가족 단위의 단체 활동이나 지역단체들의 교육활동도 활발하다.
------------	---

<표 12> 테이트 모던 주민참여 프로그램<sup>35)</sup>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Talks & Discussions	전문가의 강의, 국제적 명성의 비평가, 역사가, 이론가들과 예술가와의 토론 등이 수시로 열림.
Symposia & Seminars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통해 학문분야간의 연구 혹은 특정한 전시나 시각 문화에 대한 토론을 벌임.
Free Lectures	소설가, 큐레이터, 학자들에게서 예술과 그리고 사조, 신문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음.
Gallery Tours & Groups	다양한 규모의 그룹들을 위한 갤러리 투어가 다양한 시간에 배치 됨. 오디오와 멀티미디어 투어도 가능.
Film	2003년부터 영국 영화학교와 제휴를 하여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필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Music & Performance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아티스트들과 예술계를 이끄는 이들과 접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
Courses & Workshops	이 코스는 4-6주간 현재의 전시와 전통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토론과 목이다. 심도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자가 이끄는 대화위주의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짐.
Families	성인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School	테이트의 학교관련 프로그램들은 학교단체와 선생님들, 그리고 16-18세



Groups & Teachers	사이의 학생들의 방문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예약 가능한 갤러리 기반의 과목과 학습자료, 교육자의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ommunity Groups	테이트를 방문하는 사회의 그룹을 위한 활동들과 사회지도층과 그룹 리더들을 위한 전문인 양성 지원.
Youth	갤러리 관련 유소년들을 위한 독립 활동.

<표 13> 테이트 모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sup>36)</sup>

### 3.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 1) 배경 및 형성과정

1967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조르주 퐁피두는 69년 ‘문화생산 공장’이라는 개념 하에 “예술진흥과 사회교육을 위한 문화 예술센터” 건립을 선언한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퐁피두 대통령은 그 공간은 “조각과 회화를 소장하고 전시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음악, 영화, 연극 등을 위한 연구와 전문 도서관을 갖춘 동시대의 문화복합 공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1971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 당선된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는 첫째, 여러 전공 분야를 한 장소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주변 지역에 영입, 동화될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 셋째 내부 구조의 자유로운 변경이 용이하도록 실내

35) 곽수정, 앞의 논문, p. 109에서 참조.

36) 위의 논문, p. 110에서 참조.



건축의 유연성에 중점을 두는 것,<sup>37)</sup> 이 세 가지를 건축 목표로 하여 1972년 착공을 시작한다. 1977년 6년에 걸친 공사가 끝나고 독특한 외관의 복합문화공간인 국립 조르주 폼피두 예술문화센터 (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Pompidou)가 문을 연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1959년 문화성 설립 후, '제 5차 경제사회개발'의 일부로 '제2차 문화계획'부분에서 문화 및 문화시설의 확장에 대한 계획을 적용 중이었다. 1960년대 이후의 문화정책은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문화, 지역과 사회간의 격차 해소, 문화는 대중을 위한 교육에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1970-80년대 프랑스 내부에서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폼피두센터의 탄생은 프랑스 정부의 철저한 기획이 완성한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폼피두센터가 입지한 공간은 파리 제 4구 보부르 (Beaubourg)광장으로 18세기 경에는 주요 은행가를 비롯해 프랑스의 주요 경제적 역할의 중심지였다. 19세기 초 농촌 인구의 이주와 주민 수의 급증으로 비위생적이고 우범지역으로 변화했고, 1933-1937년에 걸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시행하려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유흥시설이 밀집해 있고 다소 낙후되어 있던 도시 이미지는 프랑스 정부의 문화 정책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조르주 폼피두 대통령이 실현 하고자 했던 대중을 위한 현대적 문화공간의 건립은 보부르 광장을 세계 문화의 중심의 한 축이 되게 만들었다.

---

37)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프랑스지방행정개관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p. 643.





<도판3> 프랑스 파리 풍피두센터

## 2) 특징

풍피두센터는 현대적이며 획기적인 외관은 물론 공간배치에도 차별화를 두어 기존의 보부르 광장을 센터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공간 활용에도 세심한 모습을 보였다. 광장과 건물을 유리라는 소재로 매개하여 ‘소통’의 개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공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확장시켰다. 또한 센터 건설과 더불어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안 연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했다. 197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센터(CNAC)의 조형미술부와 산업창작센터(CCI), 공공도서관(BPI), 음향연구센터(CRA)등 4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개관을 준비했다. 이러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건립 취지에 맞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 3) 성공요인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

풍피두센터는 낙후지역이었던 보부르 지역을 세계 문화의 거점지로 변화

시킨 것은 물론 ‘루브르 박물관’, ‘노트르담 대성당’과 문화벨트를 이루면서 파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풍피두센터의 방문객은 루브르 박물관의 약 2배인 연간 800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도서관 이용객 및 미술관 관람객 하루 평균 3만 명을 웃돌며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간 1억 6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외국인 비율 약 25%를 상회하는 성공적 도시마케팅으로 평가받고 있다.

풍피두센터의 이러한 성과는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지속되는 데 큰 보탬이 되어 1999년 10월 3일부터 매달 첫 일요일에 100개의 국립 명승지 무료 개방, 2000년 1월부터 파리 및 지방 소재 34개 국립 박물관으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은 큰 호응을 받으며 그 힘을 발휘 하고 있다.

풍피두센터는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입지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4만 5천 여 점이 넘는 예술작품을 소장하며 예술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인다. 또한 어린이 아뜰리에를 운영하며 6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예술적인 깨달음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아래 어린이 미술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 아뜰리에 관장인 가엘 베르나르에 의하면, 어린이 아뜰리에의 중요한 기능은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한다. 즉, 작가들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실험과 발명을 경험함으로써 창의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어린이 아뜰리에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것이다.<sup>38)</sup> 어린이 아뜰리에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워크샵, 성

3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 상징 공간 조성 계획 : 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하는 현장, 월드디지털컬처 스튜디오구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2003), p. 41.



인 재교육, 문화보급으로 이루어진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워크숍은 아뜰리에가 추진하는 실천 작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아뜰리에의 교과 과정을 구성한다. 어린이를 다루는 경험 보완의 필요성 차원에서 계획된 성인 재교육은 점차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80년 대 초부터 추진 되어온 프로그램은 교사대상 연수를 포함한다. 파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 아뜰리에에서 개발한 여러 교육 활동은 설립 초기부터 미술관이나 문화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전시 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이동용 교육기재를 순회시키는 것을 포함해 문화보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되어 풍피두센터 이외로 널리 확대 되었다. 아뜰리에 작업과 같은 맥락에서 최초의 전시들은 현대 미술가들의 기법과 도구, 작품들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색채, 선, 부티, 등과 같은 기초적인 조형언어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시하는 손’이라 명명된 어린이 아뜰리에 개관 기념전은 시각장애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촉각을 활용할 수 있게 한 전시였는데, 일반 아동들에게도 현대 미술가가 제작한 조각품을 손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sup>39)</sup> 센터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센터 외부에서는 광장을 포함한 레알 구역을 젊은이들의 거리로 문화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한 풍피두센터는 슬림 지역이라는 과거를 벗고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다.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며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39) 윤혜원, 앞의 논문, pp. 51-52.



공간 콘텐츠	
1층	포럼, 인포메이션 센터, 표 사는 곳, 우체국, 서점.
2층	도서 참고 자료실, 극장 1, 디자이너 부띠끄, Le Mezzanine 카페, 수시로 바뀌는 전시회.
3층	일반 열람실, 자가 학습실, 세계 TV시청실, 프레스 미디어실, 카페테리아.
4층	비디오 음향 자료실, 일반 열람실, 칸딘스키서점, 그랜드 아트 섹션.
5층	1905년에서 1960년까지의 작품을 전시 Caler, Takis, Richier, Miro, Laurent의 조각전시장.
6층	3개의 갤러리와 식당, 서점.

프로그램 콘텐츠		
퍼포먼스	영화상영	쇼 / 콘서트
토론회	컨퍼런스	미팅
젊은이들의 활동	국내 전시	국제 전시

<표 14> 풍피두센터 콘텐츠<sup>40)</sup>

#### 4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1) 배경 및 형성과정

가나자와는 호쿠리쿠 지방 이시카와현의 최대 규모의 도시이다. 가나자와시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546년 불교종파인 잇코오슈 문도가 현재 가나자와 성지가 위하는 곳에 오야마보오라는 사원을 건립하면서부터였다.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가 제정되면서, 가나자와시의 역사경관과 마을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40)곽수정, 앞의 논문, p. 144.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최초의 경관보존조례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의 전통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도시와 조화로운 새로운 전통화경을 형성하여 전승하도록 제정되었다.<sup>41)</sup> 가나자와는 과거 한때 일본의 4대 도시에 대항하는 규모를 자랑하였으나 전후 다른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중소도시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할 만큼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도시이고, 도시형성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전쟁이나 지진의 피해가 없어 현재까지도 옛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sup>42)</sup> 전통을 보존하는 것에 치우치다 다른 도시와의 개발경쟁에 뒤진 가나자와는 시민들이 1988년 ‘예술창조재단’을 설립하여 가나자와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지역 살리기에 앞장서게 되었다.

1989년 우타츠야마 공예공방을 시작으로 가나자와는 변화를 시작하게 된다. 시민예술촌, 직인대학, 유화쿠 창작의 숲 등 가나자와시의 전통성과 시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문화 도시로 재탄생되어 갔다. 1994년 시내 중심에 있던 가나자와대학 부속 초·중학교가 이전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던 가나자와는 참여형 미술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다. 10여 년에 걸쳐 준비된 21세기 미술관은 일본에서 촉망받는 건축가 SANAA(세지마 카즈요 & 니시자와 류)의 작품으로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41) 백선혜,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 관광프로그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pp. 74-76.

42) 김승화 외, 『선진국 산업클러스터 재생 성공사례 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4), pp. 58-60.





<도판4>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 2) 운영 방안 및 특징

총 사업비 113억 엔(1천2백 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에 착공한 <21세기 미술관>은 2004년 10월 개관하였다. 시의 중심부인 가나자와대학부속 초·중학교 이전 부지에 위치하게 되어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와 ‘새로운 문화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미술관은 400여년의 문화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한 의미에서 전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 역시 시대 속에서 변화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생성 된다’는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문화’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새로운 문화적 전통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는 미술관을 지향한다. 21세기 미술관은 <21세기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게 이해하고 접하며, ‘직접 느끼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시방식을 도입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미술관 내·외부의 안내를 시민 자원봉사자가 맡고, 어린이 프로그

램 보조·전시기획 등에도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활발한 시민참여를 이루어내고 있다.’<sup>43)</sup>

		
미술품 체험	어린이 미술교실	프로젝트 룸
		
토너먼트 게임	퍼포먼스	people's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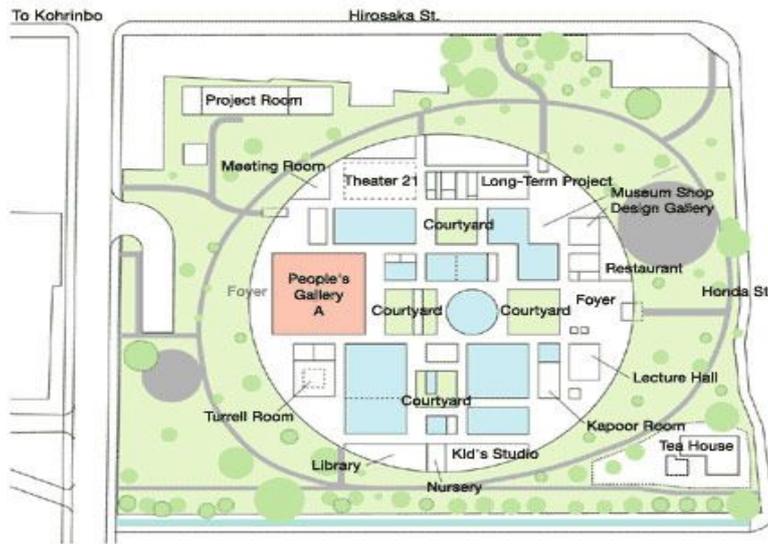
<표15> 21세기 미술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공간<sup>44)</sup>

세계적으로 미술관의 대형화가 유행하고 있는데 21세기 미술관은 미술관 공간의 상당부분을 도서관, 강당,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할애했다. 전시 공간 외에는 모두 유리로 이루어져 개방

43) 앞의 책, pp. 70-71.

44) 이미지출처 : <http://blog.naver.com/cynicult/60066085702>.

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다. 14개의 전시실이 있는 미술관은 각 전시실마다 크기와 천정의 높이를 다르게 해 소재와 장르가 다양한 현대미술을 아우를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



<도판 5>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내부

21세기 미술관 공간 콘텐츠	미디어 랩	극장 21	people's gallery	도서관	키즈 스튜디오	프로젝트 룸	미팅룸
	렉처 홀	티 하우스	장기 프로젝트 룸	뮤지엄 샵	뮤지엄 카페	디자인 갤러리	레스토랑

<표16> 21세기 미술관 공간 콘텐츠

### 3) 성공 요인 및 지역 활성화에 미친 영향

21세기 미술관은 전액 시비로 만들어졌으며, 도심에 위치한 학교를 이전시켜 문화시설을 들인다는 대담한 정책으로 완성되었다. 야마테 타모츠(山出保) 가나자와 시장은 당시 일본의 도심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제시하며 일본의 도시형성이 미국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형적 조건이 달랐던 일본은 이것이 도심 공동화로 이어져 오히려 도시발전의 역기능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때문에 주거와 직장이 한 곳에 형성되어 근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유럽식 방법을 채택하여 문화와 시민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냈다. 다양한 문화행사나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공동체 구성의 핵심으로 이러한 시설을 도심에 둬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이 가능해지고, 시내를 걷도록 유도함으로써 커뮤니티를 회복했다.<sup>45)</sup> 또한 시내에 위치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원형의 미술관은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고, 출입구는 모두 5곳으로 도시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전시된 현대 미술작품들은 만질 수 있거나 앉아 볼 수 있는 체험형 작품들이 많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곳과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21세기 미술관은 1년에 100만의 관광객으로 300억 엔 이상을 벌어들이며 가나자와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가나자와는 21세기 미술관이 독자적인 문화지구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전통과 문화로 가득 차있고, 가나자와시의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것이다.

---

45) 김승화 외, 앞의 책, pp. 71-72.



## 5. 소결

네 가지 사례를 통해 문화 공간의 도입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앞서 예시한 네 공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사례로서 그 시사점이 크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도시이미지 제고에 따른 거대 프로젝트임은 물론 그만큼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또한 예술과 문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확연한 결과물로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중요하고 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었다. 관광수익을 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이 아닌, 일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또한, 공간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이 들어서기 전부터 전철을 개통하거나 다리를 건설하고,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탄생한 공간은 건물자체에 예술적 측면을 가해 최고의 랜드 마크로 부상하며,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방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방문은 자연스럽게 지역 관광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과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Ⅲ.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공간과 제주 현대미술관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문화적 특성

한반도 남서해상에 위치한 제주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물과 2천종이 넘는 식물이 서식하는 산림과 계곡, 360여개의 기생화산, 파도에 의해 형성된 기암절벽과 폭포, 백사장 등의 해안 일대가 뛰어난 절경을 이룬다. 제주 섬을 비롯해 마라도, 우도, 가파도 등 8개의 유인도와 54개의 무인도역시 빼놓을 수 없는 제주도의 비경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5대 도시와 500만 명 이상의 13개 도시의 배후 시장을 갖고 있어 동북아 관광, 휴양 중심의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다<sup>46)</sup>. 이에 정부는 감귤과 관광산업 중심의 취약한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고, 세계 유수의 관광지와 비견 되는 제주도를 보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했다.

4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제주발전연구원, 2004), p.9.

인구 1000만 명 이상 도시(5) : 서울, 일본1(동경), 중국3(북경, 상해, 천진)

인구 500만 명 이상 도시(13) : 일본1(오사카), 중국11(대련, 심양, 항주, 소주, 청도, 연대, 남통, 영과, 온주, 남경, 제남), 대만





<도판6>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2002~2011)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입 단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성장·발전 단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숙·정착 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성숙·정착 단계 중반으로 접어들어 제주 전역에서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해 왔다. 독특한 생활양식은 물론 제주 정신과 문화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제주방언은 제주도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잘 나타낸다. 제주도는 따뜻한 기후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감귤과 관광산업이 주로 발전되어 왔다. 제주 특유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관광 인프라 개발로 해마다 관광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관 광 객	계	4,110	4,197	4,515	4,913	4,932	5,020	5,312	5,429
	내국인	3,822	3,907	4,226	4,692	4,603	4,641	4,852	4,888
	외국인	288	290	289	221	329	379	460	541
	증가율(%)	12.0	2.1	7.6	8.8	0.4	1.8	5.8	2.2
관 광 수 입	계	14,975	14,957	15,265	15,661	16,787	17,201	18,468	22,144
	내국인	10,877	10,917	11,525	13,073	13,079	13,030	13,460	16,034
	외국인	4,098	4,040	3,740	2,588	3,708	4,171	5,008	6,110
	증가율(%)	45.4	△0.1	2.1	2.6	7.2	2.47	7.4	19.9

(단위 : 천명, 억원)

<표 17> 제주도 관광객 현황<sup>47)</sup>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은 물론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세계 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된 제주도는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문화재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를 포함해 340여건이다.

47) 출처 : <2008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www.jeu.go.kr](http://www.jeu.go.kr)



(단위 : 건)

구 분	계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중 요 민속자료	중요무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84	5	6	41	9	5	18
도 일 원	2			2			
제 주 시	42	4	5	20	3	4	6
서귀포시	40	1	1	19	6	1	12

<표 18> 국가 지정 문화재<sup>48)</sup>

(단위 : 건)

구 분	계	유 형재 문화재	무 형재 문화재	기 념 물				민 속 자 료	문 화재 자 료
				소계	사적	수목	경관 지질 기타		
계	261	27	17	131	106	20	5	80	6
제 주 시	165	16	12	85	65	16	4	47	5
서귀포시	96	11	5	46	41	4	1	33	1

<표 19> 도 지정 문화재<sup>49)</sup>

## 2. 제주도 문화 공간 현황 및 운영실태

제주도내 문화공간은 제주도내 주력 사업인 관광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48) 위와 같음.

49) 위와 같음.



있어 관광을 목적으로 한 테마공간이 주를 이룬다. 나비박물관, 아프리카 박물관, 초코렛 박물관 등 사설 박물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모두 관광을 목적으로 한 상업공간으로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의 관광 시설을 위주로 공공시설이 건립되면서 실질적으로 제주 도민들은 물론 문화자체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문화회관, 청소년의 집, 여성회관, 문화의 집 등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개설되는 프로그램은 외국어 교육, 만들기 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도내 문화 공간은 문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문화적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개설되지 않고, 전문인력 또한 부족해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게다가 제주도내 사설 전시 공간 역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꾸준한 전시나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문화 인프라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제주시 지역에 제주도립미술관과 한라문예회관,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제주도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 그 중 ‘지역문화 발전과 미술대중화를 선고하고 국민문화예술 수준향상 및 미술문화 인구저변 확대를 문화선진기반 구축을 위해 1도 1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다.<sup>50)</sup> 당시 제주도에 1987년에 개관한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이 유일했으며 이마저도 전문인력 없이 행정 공무원 1명을 배치해 명목만 유지한 채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뒤이어 2002년 서귀포시에 이중섭

---

50)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 19.



미술관이 개관하였고, 두 미술관이 자리한 서귀포시를 제외하고 미술관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2000년 도내 도립미술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2년 국비 30억, 도비 60억 원 등 120억 원을 들여 전시실, 세미나실, 수장고, 휴게실 등을 갖춘 제주도립미술관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술관 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 2004년 기본계획연구를 착수하기까지 공백기가 있었고, 이 과정에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국비 지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2004년 새로운 연구진과 함께 다시 추진된 도립미술관은 현재 9월 개관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앞서 2007년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시 저지리에 위치한 공립미술관으로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의 활성화와 전시공간마련,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여타의 미술관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된 현대미술관은 현재 청년 작가 게스트하우스 신축을 준비 중이다.

2002년 개관한 이중섭 미술관도 2008년 10월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를 완공했다.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창작스튜디오는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연면적 673㎡규모로 지상 1, 2층은 공예공방으로 지상 3-5층은 29평형 2실, 26평형 2실, 20평형 1실, 16평형 1실 등 6개의 작업실과 전시실, 간이식당, 샤워장,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최근 입주 작가를 선정하여 도내작가 3명, 도외 작가 3명 총 6명의 입주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 분	내 역	관수	비 고	
총 계		283		
공공도서관	소 계	23		
	지 자 체	14	제주시 6, 서귀포시 8	
	교 육 청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사 립	1	서귀포시 1	
	특 수	2	점자 2	
박물관· 미술관	소 계	40		
	국립박물관	1	제주시 1	
	등록 박물관	박물관	19	제주시 9, 서귀포시 10
		미술관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전시관	8	제주시 3, 서귀포시 5
		자료관	1	서귀포시 1
		식물원	5	제주시 3, 서귀포시 2
기타 문화시설	소 계	220		
	공 연 시 설	21	공연장 15, 영화관 6	
	문 예 회 관	1	제주시 1	
	문 화 의 집	20	제주시 10, 서귀포시 10	
	문 화 원	5	도지회1, 문화원 4	
	문 화 학 교	14	제주시 8, 서귀포시 6	
	문 고	159	제주시 94, 서귀포시 65	

<표 20> 제주도 문화기반시설<sup>51)</sup>

51) 출처 : <2008 주요행정총람> 제주특별자치도 www.jeju.go.kr



### 3. 제주현대미술관의 입지조건과 운영 현황

#### 1) 입지조건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도 서쪽 한경면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위치해 있다. 한경면 저지리는 북제주군에 속해있던 곳으로 행정개편 이후 제주시로 편입되었다. 한경면은 법정리 13개리 행정리 15개리로 51개의 자연마을이 촌락을 이루고 있다. 한경면 총 인구 8,293명 중, 저지리에는 1,011명이 등록, 거주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과 제주시내,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내와의 거리는 각각 약 35km 정도이며, 자가운전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1999년 IMF당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색화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택지조성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중산간 지역의 저지리 마을에 인접한 현재 부지가 선정이 되면서 2001년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 착공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인 마을은 첫째,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과 환경적 특징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 조성, 둘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전유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의 관광자원화, 셋째, 도시인의 여가선용 공간 등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동강 조수호, 박서보 등 48명의 예술인에게 분양이 완료 되었다. 현재 건축물 20여동이 완성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건립예정에 있다.





<도판7> 제주현대미술관 전경

제주현대미술관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1,000여명이 동시관람이 가능한 야외공연장 시설과 어린이 야외조각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미술관 주변에는 방림원, 야생초 박물관, 평화박물관, 생각하는 정원, 수컷돌거북이 수석 박물관 등이 근접해 있다.

계	서양 화	한국 화	사 진	서 예	문인 화	화랑	국악 인	야생 화	시사 만화	민예 품	자 수	전통 의상	기 타
48	6	4	5	6	4	3	3	1	1	2	1	2	10

<표 21>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예술인 장르별 현황<sup>52)</sup>

## 2) 제주현대미술관 운영 현황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시에 생긴 첫 공립 미술관으로서 그 기대치가 크

52) 출처 : 제주현대미술관 [www.jejumuseum.go.kr](http://www.jejumuseum.go.kr)

다. 특히 제주도내 문화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생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 내에 입지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공간이다. 중견작가들과 도내 작가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작가들의 작업공간과도 근접하다는 점에서 여느 미술관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속하고 도민의 문화 향수권 보호, 지역·국가·아시아 국제미술을 선도한다는 목표를 두고 개관 했다.<sup>53)</sup> 제주도는 선사시대 이후 독립된 해양문화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태풍과 바람에 의해 형성된 계곡과 절벽, 능선은 제주도 고유의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냄으로써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독특한 자연, 문화유산은 제주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양하는 바탕이 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이러한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과 주체적인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형성된 차별화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시각 예술문화를 수용하고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령화 사회, 문화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문화산업의 발전, 다문화 주의, 문화의 세계화와 지방화 등의 요인들을 통해 문화적 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른바 ‘문화예술의 세기’로 일컫는 21세기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하드웨어로서 다양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 세계를 비롯한 국내의 각 도와 특별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박물관, 미술관, 종합 아트센터 등을 건립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확정되면서 2002년 발표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 56조의 ‘향토문화의 진흥’과 2003년에 발표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2004년 완성된 <제주문화예술증장기 계획>에 따라 도민들의

53)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집 : 아시아의 눈동자, 세계를 보고 나를 본다.』 (제주문화예술재단, 2004), p. 13-15.



문화 향수권은 법제적 차원에서 보호 될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민의 문화 향수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정책의 결과로 생산되는 다양한 성과물들을 국민으로서 향수할 권리를 의미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 시설이다.

제주도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축으로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국제자유도시와 연관된 각종 기업 활동과 평화의 섬, 세계 섬 문화 축제 등 다양한 관광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로 정해진 제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은 일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제주도민의 문화적 향수권을 보호한다는 대내적 차원을 넘어 국내와 아시아, 나아가 국제적 미술 문화를 선도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세워나갔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건립한 제주현대미술관은 ‘지역이미지 제고 및 문화경쟁력 강화’, ‘열린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도시발전 기여’, ‘도내 관광산업의 진흥’<sup>54)</sup>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 건립에 앞서 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내 미술관 운영에 있어 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것을 최소화 하기위한 연구를 했다.

선행미술관의 문제점<sup>55)</sup>

1. 내부적 활동의 외부적 기대효과 모호
2. 정태적인 미술관 운영방식의 극복 미흡
3. 사회봉사의 형식적인 재현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미흡
4.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여기회 미흡

---

54) 앞의 책, p. 18.

55) 위의 책, p. 58.



5. 교육, 출판, 문화서비스 등을 통한 재정자립 의지박약
6.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박물관 운영인지 모호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위해 <표22>와 같은 개념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안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의 대안적 운영방향<sup>56)</sup>

1. 복잡 다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부응하는 미술관 운영지향
2. 도민을 위해 도민의 참여로 운영되는 ‘미술관’ 특성 부각
3. 관람객을 기다리는 미술관이 아니라 관람객을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4. 전기능형 미술관 운영을 지향하되, 문화서비스를 특성화하는 운영
5. 관광객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운영
6. 문턱 높고 닫힌 미술관이 아니라 ‘열린 문화센터’로서의 이미지 부각
7. 각계각층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필요한 미술관 운영
8. 조직 내부적으로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이 중시되는 운영
9. 미술문화에 대한 인식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
10.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11. 미래사회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술관 운영
12. 아시아의 구심점이 되는 미술관 운영

다양한 연구와 준비로 2007년 9월 1일에 제주현대미술관이 개관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본관과 분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773㎡으로 김홍수 화백의 기증 작품이 전시된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실 그리고 2개의 기획전시실 및 수장고·자료실·아트샵 등으로

---

56) 앞의 책, p. 59.



구성되어 있다. 본관은 지상 1층의 연면적 166㎡으로 특별전시실로 박광진 화백의 기증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회 환경	내부적 활동목표	외부적 관계목표	운영목표 및 기대효과	비고
현대사회의 다변성, 복잡성	전문성 제고	대중성 확보	역동적 미술과	제주현대미술관
		공익성 확보	효율적 미술관	
	창의성 제고	교육성 강화	친근한 미술관	
		정보성 향상	유익한 미술관	
문화향수권	자율성 제고	매력성 제고	미술문화학교	
		미래성 지향	개방된 문화센터	
	자립성 제고	국제성 지향	필요한 시민공간	
		소외층 포용	삶의 재충전 공간	

<표 22> 제주현대미술관의 대안적 운영을 위한 개념57)

2007년 9월 개관전인 ‘신화를 삼킨 섬 - 제주풍광 展’을 시작으로 현재 ‘2009 제주현대미술관 소장 작품 특별전’까지 다양한 기획전과 소장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대미술관이 개관한 2007년 관람객수는 7,674명이었고, 2008년에는 31,066명을 기록했다. 2007년 9, 10, 11, 12월 총 4개월의 누적 관람객이 7,674명을 기록했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인 2008년 9, 10, 11, 12월의 누적 관람객은 13,284명으로 5천여 명이 넘게 증가 했다.

시설명 / 층수	면적(㎡)	주요시설 및 기능
본관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소방펌프실
	지상1층	사무실, 자료실, 전시실, 수장고, 아트샵
	지상2층	전시실, 안내실, 야외 휴게실
분관	166	안내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1,112	1,000여명 동시관람 가능

57) 위와 같음.



아뜰리에	76	창작 공간, 응접실
공중화장실	54	장애인2, 남자3, 여자5

<표 23> 제주현대미술관 주요시설현황<sup>58)</sup>

년도	입장객 현황
2007 (9~12)	7,674
2008 (1~12)	31,066
2009. 1.	2,604

<표 24> 제주현대미술관 관람객 현황

### 3) 문제점

제주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현대미술관과 제주시, 서귀포 시내와 제주공항과의 거리는 자가운전으로 1시간,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가량이 소모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시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km가량을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미술관이 위치한 저지리가 중산간에 위치해 있어 버스의 배차 간격과 이용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관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2009년 2월 초까지 제주시와 제주공항을 경유하여 미술관에 도착하는 투어버스를 시범 운행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의 부재이다.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상시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미술관이 시행한 교육 행사는 2008년 5월 가정의 달 문화 체험행사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도자기 문화’가 유일하다. 제주현대미술관의 독특한 입지조건과

58) 출처 : 제주현대미술관 [www.jejumuseum.go.kr](http://www.jejumuseum.go.kr)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제주현대미술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앞서 2장에서 해외 성공사례를 통해 문화 공간 운영에 있어서 성공적인 공통요인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에서 살펴본 제주현대미술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해 보고자한다.

### 1. 교육프로그램 및 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미술관에서 할 수 있는 미술 활동으로는 체험활동을 통한 작품제작과 전시 관람을 통한 감상 및 비평 등이 있다. 체험활동은 참여하는 청소년 및 일반인들은 작품 제작을 통해서 작품의 조형성 및 제작과정을 배우고, 참여자들의 개성 있는 감정표현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전시 관람을 통해서도 관찰력과 상상력 등을 높이면서 개개인의 독창적인 표현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효과가 나타난다. 획일화된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미술관이라는 현장교육을 통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술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다.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수행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수도권 지역 청소년들은 수시로 미술관, 갤러리를 찾으며 미술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대형 전시에도 학교 단체관람을 비롯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및 대도시 어린이, 청소년들은 전시문화에 쉽게 노출되어있고, 그 선택 또한 다양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전시공간이 부족한 제주도의 어린



이, 청소년들은 전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상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질 좋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주현대미술관 반경 4Km 내에는 폐교가 된 곳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이 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인 제주시내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 만큼 교육적인 혜택 역시 열악한 환경이다. 최근 시내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하여 미술관과 지역 학교의 유대관계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미술관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야외공연장과 아뜰리에, 문화예술인마을 내에 작가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서 미술관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도라는 지역색을 살린 지역문화교육 등 연계성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 확립에도 앞장서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미술관의 이미지를 고착시켜 도민들과의 심리적 접근성을 좁혀나가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시 한경면은 전형적인 농, 어촌 마을로서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며,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다. 한경면 총 인구 8,293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483명으로 약 30%에 해당한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 고령자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전용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다.

노후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점차 자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고령자들은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



기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예술, 미술 활동은 개인의 심리적 표현은 물론 신체활동까지 가능한 영역으로서,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신체활동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활용범위가 넓다. 최근에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미술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인미술교육이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고령자 대상 미술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한 교육·여가시설의 하나로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에서 복지관 이용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복지관의 증가와 질 좋은 프로그램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복지관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술관에서도 연령에 맞는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관람자의 수요와 만족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한 곳으로서 일자리가 부족해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를 찾아 젊은 인력들이 섬 밖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문화공간의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에듀케이터와 다양한 전시기획을 진행할 큐레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으로 제주도내 고용문제와 청년 실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 2.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 형성

### 1) 저지문화예술인 마을과의 유대

제주현대미술관이 들어서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는 48명의 예술인의 분양이 완료되었다. 현재 25개동이 공사 완료 되어 입주해있으며,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화, 서양화, 사진, 도예, 전통의상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기성작가들과 제주지역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예술인마을과의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국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문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작가의 작업 공간과 근접해 있는 미술관은 국내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공개하고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주현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색 있는 미술관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다. 또한, 도내 예비 미술인을 위한 입주 작가들의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인재양성의 근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해외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현대미술관이 입지해있는 제주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일본의 와카야마, 아라카와, 벳푸, 산다, 중국의 꾸이린, 양저우, 쿤산, 래주, 훈춘, 미국의 라스베이가스, 산타로사, 프랑스의 루앙이다. 현재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관련 교류도 활발하다. 단순한 지역행사 교류가 아닌 예술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두고 지역 작가나 지역 미술관과의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미적 사고를 함양한 세계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미술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 대학이나 초, 중, 고등학교의 우수 인재들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세계적인 예술가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작품과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문화적 감성이 고양되고, 자긍심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이상 한 나라의 작은 섬이 아닌 세계를 바라보는 곳으로서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시기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 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관만의 노력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 3) 제주도 문화 네트워크 형성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접근성이다. 그에 따른 교통편도 아직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일반자가용을 제외하고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하여 미술관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지난 2008년 12월 27일부터 2009년 2월 1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과 방림원을 연계한 무료 투어버스 시범운행 했다. 토요일, 일요일 한차례씩 주2회 무료 왕복 운행을 실시했고, 미술관과 방림원 관람시간 1시간 30분을 소요하며 제주시와 제주공항, 미술관을 경유했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나 자가운전이 어려운 시민,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미술관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행사였다. 총 12일 간의 운행에 모두 274명이 이용하였고, 운행기간 중 3일간은 폭설로 인한 어려움이 따랐다. 미술관 내부 회의를 거쳐 3월부터 투어버스 프로그램 재운행을 계획 하고 있다.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미술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런 투어버스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하게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편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미술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제주현대미술관 주변의 문화, 관광 시설로는 방림원, 제주분재예술원, 오



설록 뮤지엄, 소인국 테마파크 등이 있다. 방림원, 오설록 뮤지엄, 소인국 테마파크는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시설로서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는 공간이다. 제주현대미술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통합 패스권, 각 공간과 미술관을 잇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이 쉽게 미술관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미술관을 홍보하고 방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제주도 소규모 문화 단체와 연계한 문화 활성화

도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공연단체는 1인극, 마임, 샌드 애니메이션, 거리 예술제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문화 연구소 제주 꽃놀래에서는 제주어와 제주 신화를 주제로 한 1인극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08년 7회를 맞이한 거리 예술제 ‘머리의 꽃을’은 테러제이라는 제주도의 한 민간단체가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모여 공연, 설치 작업, 전시, 퍼레이드 등 문화행위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문화 단체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공연문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이 거리예술제에서 볼 수 있는 제주도를 주제로 한 샌드 애니메이션은 제주도 공연문화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제주 현대미술관이 평면 미술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제주 지역의 소규모 문화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을 수용하여 현대미술 장르의 다양성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풋감을 이용해 천연염색을 한 천으로 옷을 지어 입어왔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갈천은 다양하게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옷뿐



만 아니라 가방, 지갑 등 다양한 악세사리는 물론 최근에는 공예품의 재료로 이용된다. 청바지로 만든 회화작품이 나오는 등 현대미술은 장르뿐만 아니라 재료 역시 다양화 되고 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건립당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화단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제주도 작가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중한 수집사업을 실천하여 지역 화가들을 중심으로 제주 문화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술관’<sup>59)</sup>으로서의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갈천을 소재로 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무한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의 소규모 천연염색 공방에서는 감을 이용한 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들풀을 이용한 천연염색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교육체험을 미술관과 연계하면 제주 지역 고유의 전통을 보존하고, 다양한 예술의 소재로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59)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 32.



## VI. 결론

문화는 우리 일상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다. 문화공간은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에게 휴식, 교육, 유희 등을 제공한다. 문화 예술 산업이 세계적으로 큰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문화와 문화 공간은 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문화 공간이 지역문화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에 맞는 문화 공간 운영방안을 연구했다.

문화는 이미 사회 안에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고, 문화 공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문화 체험 등 사람들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문화 공간 역시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문화 예술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문화 예술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산업은 도시 재건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일본, 네 나라에서는 쇠퇴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방책으로 ‘문화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였다.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각 도시에 들어선 문화 공간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내면서 지역 문화에 흡수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개관한 문화 공간은 문화적인 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은 물론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초석이 된 공통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첫째, 민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 둘째, 접근성의 확보, 셋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계획의 범주에 속하는 요소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개발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공간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세계 유산으로 등재 된 이후,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고 문화 예술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에 들어갔다. 2007년 제주현대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9년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인 한라문예회관과 서귀포문화예술회관 또한 개관을 준비 중이다. 특히 특별자치도로 변화한 제주도는 자립적인 정책과 운영으로 도민의 문화 향수권을 보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자리하고 있다. 부실한 운영으로 기존의 문화 공간 운영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모델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운영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앞서 살펴본 성공 사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제주현대미술관에 맞는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보았다. 첫째, 제주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미술관과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 노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 도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와 연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접근성을 좁혀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제주현대미술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고학력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의존적인 성향을 벗어나



최근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의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실버 단체나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제주현대미술관이 입지한 환경면에도 고령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 흐름과 지역적 특성에 맞춘 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제주현대미술관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화된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보다 성공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는 우수인재들이 수도권 대학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빠져나가 있는 실정이다. 남아있는 인재들은 실력을 발휘할 곳이 없다. 미술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고용문제와 청년 실업의 해소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둘째, 타 기관 및 단체와의 유대관계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제주현대미술관이 입지해 있는 저지문화예술인 마을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는 회화, 사진, 도예, 전통의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작가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창작 공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제주현대미술관이 갖는 경쟁력이다. 이러한 특색을 살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통해 지역과 더욱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명성과 국제자유도시로서 발전에 맞춰 다양한 국가, 지역과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의 분야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내 문화 공간 건립은 도내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기위한 취지가 내포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문화교류 역시 전문화시켜 다양한 예술과 좋은 작가, 우수 인재들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미술관 주변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시설이 입지해 있다. 이러한 시설들과의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물꼬를 틀고, 접근성 확보



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미술관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 번째로 제주지역의 소규모 문화 단체와 연계하여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제주도 신화를 다룬 1인극 퍼포먼스 등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제주현대미술관의 건립 취지를 만족시키면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는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천연염색을 활성화 하여 갈천을 이용한 예술가 발굴과 예술품을 소개하고, 제주 지역 천연염색 공방과의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제주도만의 특징을 살려 현대미술의 소재와 장르의 다양성을 제시함으로써 제주 특유의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현대미술관에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사례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현대미술관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는 앞으로 실천을 위한 초석으로 자치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도민들의 주민의식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운영방안이 아닌 현실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한 성공적인 운영으로 제주현대미술관이 제주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및 보고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 미술관진흥정책연구』, 국립현대미술관, 2005.

\_\_\_\_\_, 『미술관백서 ,2005』, 국립현대미술관, 2006.

김승화 외, 『선진국 산업클러스터 재생 성공사례연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4.

김효정 외, 『문화를 통한 지역개발 사례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 상징 공간 조성 계획 : 문화와 첨단 기술이 결합하는 현장, 월드디지털컬처 스튜디오구상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 2003.

\_\_\_\_\_, 『2008년 문화산업통계 (2007년 기준)』, 문화관광부, 2009.

백선희, 『북촌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양현미 외, 『문화의 사회적 가치 : 행복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이무용, 『공간의 문화 정치학』, 논형, 2005.

정갑영 외, 『문화와 사회발전의 관련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현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중간보고회 자료집 : 아시아의 눈동자, 세계를 보고 나를 본다』, 제주문화



예술재단, 200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제주발전연구원, 200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공저, 『문화산업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 제1부 : 종합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프랑스지방행정개관2』,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4.

C. Jenks, 김윤용 역, 『문화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6.

## • 학위논문

곽수정, 「유휴(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김기곤, 「문화도시의 구성과 공간정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문지윤,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심응섭, 「한국의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양미경,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획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윤혜원,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연구 : 국내외 주요미술관을 중심으로



- 로」,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소진, 「현대미술관의 공간 구성 특성과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장혜영,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비교연구-영국의 셰필드, 스페인의 빌바오, 한국의 부천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지영, 「지역 문화시설의 공급과 건축공간 구성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황시권, 「지역의 공공 문화 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 참고 사이트

- 제주현대미술관 <http://www.jejumuseum.go.kr>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자료센터 <http://jejudb.jejudb.go.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 국립현대미술관 <http://www.moca.go.kr>

## • 기타

- 「이중섭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모집」, 이슈제주, 2008. 11. 3. <



<http://issuejeju.com>>

「제주어 보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라일보, 2008. 12. 8.  
<<http://hallailbo.co.kr>>



## 도 판



<도판 1>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도판2>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도판3> 프랑스 파리 폰피두센터



<도판4> 21세기 미술관





<도판7> 제주현대미술관 전경

## Abstract

### Research on how to operate cultural centers to reinvigorate the local culture

- 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Submitted by Yun Min Hee

Advisor by Prof. Dr. Kim Yi soon

Department of Art Planning

The Graduate School of Fine Ar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

In the 21st century, the world entered a new era of culture. Human culture has advanced since the emergence of the human race and the beginning of the society. It has changed and expanded in various ways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In the quest to meet the contemporary audience's needs and preferences, the cultural centers also have changed.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modern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declined and cities have gone through enormous changes accordingly. Each country has implem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o



deal with such urban decline. Culture and arts became a new topic of discussion and numer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urned their interest in restructuring the cities based on the cultural industry. The result was successful in various countries like France, Spain, England and Japan and therefore the culture and arts industry gained great attention.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examples of socially and economically successful cultural centers among varied cultural industries and to examine the key factors in their success, and to suggest how to successfully operate the cultural centers in Jeju. The thesis consists of theoretical reviews based on the relevant documents and case studies of successful overseas models. The successful examples include those where the museums took the lead to reinvigorate the regional culture effectively. The thesis is to analyze the successful factors through the examples and suggest the appropriate administrative methods for the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Culture is one of the key elements to constitute the society. As five-day work week and school week are introduced in Korea and people have more spare time and money, there is a trend that people enjoy leisure. People are more actively interested in leisure and ask for higher quality. Accordingly, various cultural centers and programs are offered and even specialized cultural spaces are developed. The number of those who have indirect experience of culture is increasing as a variety of mass media and internet are



more available. However, such cultural benefits are more evident in the metropolitan area. Therefore, people living in outskirts with less cultural spaces and program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ulture indirectly and thus experience a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Consequently, it could cause some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In order to impede the centralization proces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balance culture between areas, it will be an admirable proposal to build cultural infrastructure in the less culturally developed provinces. Especial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is most distant from the metropolitan area, Gidang Contemporary Art Museum of Seogwipo opened in 1985 as the first museum in Jeju. However, the museum has not been well maintained and carried its function effectively. Founded in 2002, Jungseop Lee Museum became the prime cultural center in Seogwipo city and drew a lot of attention of then. However, its facilities were not adequate to serve major curatorial exhibitions and thus it also fell short of being a major art institu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as the first public museum of the province, opened its door in 2007 in Jeju city where 72% citize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ive. The museum is located in the middle of Jersey Cultural Art Village which was established in 1999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nd local specialization. The purposes of the museum are to revive the Jersey Cultural Art Village, to provide



exhibition space and to meet the various demands for art. The museum's location also retains unique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or Jeju Island was register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province government changed its interest in conservation rather than the city development. Therefore, the city planning has changed by considering the culture and arts and conservation.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the first public museum in Jeju province and holds a special meaning for the residents in Jeju. If the museum grows to be a successful cultural center, it will mean more than special. It will make a shining example on how to successfully operate an art institution, especially for Jeju Provincial Museum which is scheduled to open in 2009 and for Jeju Culture and Arts Center which is under construction. In this way, Jeju Island, a free international city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able to become a world-famous cultural tourist spot in the future. By reflecting the positive and practical examples out of the desk theory and thinking them over from a critical perspective, it is imperative now to make a research on how to operate the cultural centers more efficiently and more flexibl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Jeju.

